

<2011년 1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 1월 4일 화요일 ~ 1월 5일 수요일 잠언을 이어서 보세요.

1. 일만 하지 말고 일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항상 안전에 주의하면서 해야 된다. 육적세계도 신앙세계도 동일하다.
2.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숨은 쉬면서 해야 된다. 좋은 일이 있어도, 혹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항상 숨은 쉬어야 된다.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일을 할 때는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고로 그 모습을 항상 눈으로 마음으로 보면서 해야 된다. 구경만 하고 관광만 하다가는 사고 난다. 사랑만 하다가 타인으로부터 오는 공격도 있으니 경계하면서 해야 된다. 먹이를 사냥하여 먹는 동물도 경계하며 먹는다. 그래야 안 뺏긴다.
3.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선한 일을 안 할 때보다 더 어려움이 올 때도 있다. 그렇다고 안 하면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한다. 얻는 만큼 고통이 온다. 그것은 얻은 것에서 오는 쓰레기들이다.
4.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초가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지으면 그 날부터 고통이 온다. 더 좋은 집을 지을수록 고통이 오고 수고가 따른다. 그래도 새 집을 짓지 않으면 평생 초가집 삶의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과 주님의 일도 그러하다.